

慾望과 自意識의 限界

—*Jude the Obscure*를 中心으로

趙 進 來

I

Thomas Hardy가 55세 되는 해인 1895년에 소설 *Jude the Obscure*가(앞으로 本稿에선 *Jude*로 표현함) 출판되었다. 당시의 윤리관과 도덕상의 문제점을 예견하고서 합리화하고 싶었는지 “Our ideas were fifty years too soon to be any good to us”¹⁾라고 밝혔지만 세인들의 거부반응은 너무나 거셌고 그 표현은 참담하기 그지없었다. *Tess of the D'Urbervilles*가 뻔뻔스럽고 부도덕하다면 세평과는 견줄 수가 없는 내용들이었다.

Jude the Obscure the Pall Mall Gazette called it, a book of dirt, drivel and damnation. 'It is the studied satyriasis of approaching senility, suggesting the morbidly curious imaginings of a masochist or some other form of sexual pervert,' wrote *The Bookman* in New York. 'The eagerness with which every unclean situation is seized upon and carefully exploited recalls the spectacle of some foul animal that snatches greedily at great lumps of putrid offal which it mumbles with hideous delight in the stench that drive away all cleaner creatures.' The Bishop of Wakefield was so disgusted with the 'insolence and indecency' that he threw the book on the fire.²⁾

그러나 Hardy는 의연한 자세를 취하면서 문학적인 내용을 담은 편지를 3회에 걸쳐 Edmund Gosse에게 보내면서 자신의 작가적 견해를 개진한 일³⁾ 이외엔 시종 초연한 태도를 취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내용과 결과 및 객관적 입장의 논평을 H. Orel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One of the saddest events in all Victorian literary history was the trip taken by Emma to London...after her husband had refused to make changes in the manuscript of *Jude the Obscure*... to appeal to Richard Garnett, of the British Museum, that he in turn might exert pressure on her recalcitrant husband. This time she wanted more than deletions or alterations; she wept because Dr. Garnett would not ask her husband to burn the entire manuscript.⁴⁾

- 1) Thomas Hardy (1923), *Jude the Obscure*(New York:The Modern Library), p.492. (앞으로 본 논문에서 인용하는 이 소설은 인용문 끝에 페이지로 표시함)
- 2) Gillian Avery(1976), 'The Later Years', *The Genius of Thomas Hardy*, ed., Margaret Drabble (London: Weidenfield and Nicolson), p.46.
- 3) Sheila Sullivan(1976), 'Friends and Critics':1840—1928, ed., M. Drabble, p.35.
- 4) Harold Orel(1976), *The Final Years of Thomas Hardy: 1912—1928*(London: Macmillan), pp. 28—29.

이 내용에 관해서 G. Avery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⁵⁾ Emma의 성격과 남편 Hardy에 대한 아내로서의 자세가 논의될 수 있겠으나 이 점은 일단 本稿에선 논의 밖으로 밀어두기로 한다.

한편, Hardy가 전술한 바와 같이 외부로의 즉각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았으나 내면의 변화는 컸던것 같다. *Jude* 이후에 창작방향을 완전히 詩로 전환시킨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한 견해는 구구하다. 첫째로, *Jude* 때문에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형태의 글, 즉 소설에서 손빼고 소설이 야기했던 소란스러움을 독자들의 뇌리에서 사라지게 하려는 의도로 詩作에만 전념했다⁶⁾는 의견이 있고, 둘째로, 그의 시인으로서의 재질을 중시하는 입장⁷⁾인데, 소설이 경험이나 체험이라는 재료를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진실의 가능성을 내포한 허구의 세계이어야 하는데 반하여 시는 직관적, 함축적, 비유적, 사변적 및 상징적 표현으로 주제 전달에 보다 강점을 가지기 때문에 천부적인 시적 재질을 노년에 접어들면서 적극적으로 살려냈다는 것이고, 셋째로는 Hardy의 자서전적 내용을 이유로 들어⁸⁾ 그의 다른 어느 산문 작품에서 보다는 가장 강렬하게 직접적으로 Tryphena와의 사랑문제 뿐만 아니라 그네들간의 사생아까지 취급하고 있는 *Jude*인 까닭에 작가로서도 소재의 한계가 있고, 또 그 사건을 더 이상 소설로 승화시킬 이유가 없어서 1895년 이후엔 소설 집필에서 손을 뗐다는 견해도 있다.

여하간에 *Jude*가 Hardy의 작가로서의 생애에 전환점 노릇을 하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부인이 개입하여 그 작품을 없애버리려 했으며 비평가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독자들도 법석을 피우게 한 이 소설에서 주인공 Jude Fawley의 정신적 및 육체적 궤도를 추적하고 그의 주변 인물들을 살피면서 그의 욕망과 그 욕망이 어떻게 좌절되는가를 분석하는데 이 글의 뜻을 둔다.

*Jude*는 Hardy의 다른 장편소설들⁹⁾과 분량이 엇비슷하게 총 5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여섯 部로 대별하고 각 部마다 사건이 전개되는 地名을 小題目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 장소들은 Wessex 지도에 물론 포함된 지명들이지만 내용에 있어선 Clym Yeobright, Michael Henchard, Tess같은 주인공들이 활동무대로 삼은, 또 그들을 에워싼 배경을 이루고 있어서 오히려 소재목으로 장소를 밝히지 않은 다른 Wessex소설들 보다 판이한 면이 있다. I. Gregor는 이러한 사실을 "...Wessex has faded into the world in which the author wrote."¹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도회지향적 배경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시 대학교가 안고 있던 사회적 신분제에 따라 입학할 허용하고 무자격자에게 명예학위까지 수여하던 academic snobbery라는 넘지못할 벽에 막혀버리는 Jude의 좌절과 소위 新女性(new woman)을 등장시켜 free love와 sex문제를 다루는데 그 연유가 있다고 하겠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Hardy의 모든 소설이 주인공들을 成人으로 등장시키지만 이 소설에선 비록 짧은 생애

5) Avery(1976), p.46.

6) Ibid., p.47.

7) R.A. Scott-James(1957), Thomas Hardy(London, New York, Toronto: Longmans, Green & Co.), p.29.

8) Lois Deacon(1976), 'Hardy's Secret Love', ed., M. Drabble, p.30.

9) *The Return of the Native*는 소재목 6항에 총 48장, *The Mayor of Casterbridge*는 소재목 없이 45장, *Tess of the D'Urbervilles*는 7항의 소재목에 5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0) Lan Gregor(1974), *The Great Web: The Form of Hardy's Major Fiction* (London: Faber and Faber), p.230.

의 주인공이긴 하나 11세 때부터 성장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점인데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이유를 펼쳐나가기 위한 작가의 치밀한 구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

우연과 irony를 통한 비관론과 염세주의 취향이 Hardy의 다른 소설들처럼 질게 풍기기는 하지만 우연을 위한 우연이 크게 배제되어 소위 内在意志나 神의 뜻에 좌우되는 인간 묘사에 반응하는 가너린 연민의 정이나 Egdon황야의 미물같은 존재에서 연유되는 무기력한 좌절감이 아닌 현실에 부딪쳐 비극적 연민을 창출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작품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환언하면, *Jude*는 神이 아닌 인간과, 인간이 안출해낸 제도에 맞선 투쟁을 벌임으로써 주인공은 책 속에서만 존재치 않고 비록 육신은 사그러졌을 망정 그 영혼은 언제나 “우리들”이란 범주로 묶어두는 인간 세계에 상주하면서 보다 훌륭한 인간을 위한 귀감이 되고 보다 향상된 계반 제도의 합리성을 촉구하는 촉매제로 작용해야 할 *meliorism*¹¹⁾의 교과서적 성격을 띤 비극소설이다. 이에 대한 보충설명으로 작품의 개요를 집필하기 시작할 당시와 작품이 출판되고 31년이 지난 후에 작가 자신이 기록해둔 일기를 인용하고자 한다.

24 October, 1892

The best tragedy...highest tragedy in short...is that of the WORTHY encompassed by the INEVITABLE. The tragedies of immoral and worthless people are not of the best.¹²⁾

20 September, 1926

Christminster is of course the tragic influence of Jude's drama in one sense, but innocently so, and merely as crass obstruction. By the way it is not meant be exclusively Oxford, but any old-fashioned university about the date of the story, 1860—1870, *before there were such chances for poor man as there are now....*¹³⁾ [my italics]

II

평면 위의 점은 선이다. 그 점이 무수히 연장되면 직선도 되고 곡선도 된다. 역으로, 그 선을 다시 조개어 나가면 점으로 환원된다. 동일한 평면 위에서 두개의 직선이 동일한 간격을 유지하며 연장될 때 평행선이 된다. 평행선! 지평선을 바라보면 두 평행 직선이 교차하는 합치점이 보인다. 그러나 그 합치점을 향하여 접근하면 다시 무한의 두개의 직선이 존재한다. 무지개를 쫓는 徒勞의 작업이다. 평행선의 어느 한쪽 선이 접근을 시도하여 회절될 경우 다른 한쪽 선이 접근해오는 만큼 물러서면 형태만 일그러질 뿐 여전히 평행선으로 남아 평행곡선이 된다.

Arabella와의 첫 만남에서 작자가 직접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They walked in parallel lines, one on each bank of the stream, towards the small plank bridge. (p.43)

이 평행선은 그 순간엔 만나기 위해서 설정된 것이지만 그 만남이 전체 사건을 전개시키는 시발점이기 때문에 영원한 결합을 위한 것이 아니어서 전체 작품의 plot과 상징적 유대 관계를 보이는 기하학적 구성이다. 그러나 작자는 이에 관해선 전혀 의식치 못했던 사실이

11) John Alcorn(1977), *The Nature Novel from Hardy to Lawrence*(London: Macmillan), p.22.

12) Florence Emily Hardy(1962), *The Life of Thomas Hardy*(London: Macmillan), p.251.

13) Ibid., p.433.

라고 E. Gosse에게 편지로 밝혔음이 그의 일기(1895년 11월 10일자)에 기록되어 있다.

...Your review [of *Jude the the Obscure*] is the most discriminating that has yet appeared. It required an artist to see that the plot is almost geometric constructed...I ought not to say constructed, for beyond a certain point, the characters necessitated it, and I simply let it come...¹⁴⁾

비단 E. Gosse뿐만 아니라 기하학적 구성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은 評者가 또 있다.

Albert Guerard marvels "that the book manages to survive its almost geometrical construction": but the tight, trap-like plotting is fundamental to the irony of the novel.¹⁵⁾

이 평행선은 전혀 소속감이 없는 Jude가 자신의 전부를 내던져 우주적 질서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잡다한 人間事와 제도 및 인습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노력과 그 결과로 빚어진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구조적 장치다.

11살 된 고아로 종교모 Drusilla 밑에서 주경야독의 생활을 하는 Jude가 Phillotson선생과 헤어지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Jude*는 헤어짐의 반복이다. 만남을 갈구하는 마음의 강도가 강할수록, 결합에의 노력이 드셀수록 헤어짐의 농도가 짙어짐은 상대방의 의식작용과 외부의 사회적 제약을 포용하거나 이를 융화시켜 수용하거나 적응내지는 동화되지 못하는 Jude의 무의식적 무관심과 결여된 적극성과 주변을 의식치 않는 목표지향적인 외골수의 단순성 등 그의 성격에서 그 이유가 발견되는 문제점이다. 평온한 전원의 자연에 묻혀 자연을 벗하며 성장하는 그에게 때묻지 않은 순진하고 착한 성품이 배태되어 있어서 자연의 미물마저 다치지 않으려는 마음을 지녔지만(p.13), 종교모로부터 감춰두어도 좋을 집안 내력과 일이 나 열심히 하며 살아야 할 주제에 책벌레가 되는 것은 당치도 않다는 악담을 들은 후로는 출생에의 저주와 自嘲의 성격이 강해져서 들뜬 새끼 새끼를 포기하고 오히려 방관적 태도를 취하다가(p.11) 매맞고 쫓겨오며 하는 생각은 너무 조속한데 바로 이 점이 Hardy의 소설 기법의 효과¹⁶⁾이기도 하다.

...and feeling more than ever his existence to be an undemanded one,...Events did not rhyme quite as he had thought. Nature's logic was too horrid for him to care for...As you got older, and felt yourself to be at the center of your time, and not at a point in its circumference, as you had felt when you were little, you were seized with a sort of shuddering, he perceived. (p.16)

대학과 학문의 도시 Christminster로 진출하려는 자의식적 목표설정과 이를 추진해내려는 그의 의지는 빵 배달하는 마차를 몰면서도 회랍고전과 라틴어 문법을 탐독하며 공부하는 장면에서 뚜렷해지는데 그의 또 다른 한 면의 성격을 노정시키는 점이다. 이 장면은 Hardy가 실제로 겪었던 체험을 그대로 작품에 이용한 것이지만 Jude의 복합적인 성격묘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It is interesting to mention that on his way to school he did once meet with a youth like Jude who drove the bread-cart of a widow, a baker, like Mrs. Fawley, and carried on his studies at the same time, to the serious risk of other drivers in the lanes; which youth asked him to lend him his Latin grammar...¹⁷⁾

14) Ibid., p.271.

15) Alcorn(1977), p.22.

16) Dale Kramer(1975), *Thomas Hardy: The Forms of Tragedy*(London: Macmillan), p.140.

17) Hardy, F.E.(1962), p.274.

작품에서 계산된 Jude의 20여년 남짓한 시간의 절반쯤이 필생의 목표인 대학공부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할애되고 있으나 막상 그가 대학 입학할 시도했을 때 그의 가장 큰 약점을 찌르는 내용의 거절 통고가 전해진다.

...judging from your description of yourself as a working-man, I venture to think that you will have a much better chance of success in life by remaining in your own sphere and sticking to your trade than by adopting any other course....(p.139)

Hardy는 대학 진학 문제를 소재로 삼게 되었던 계기를 1888년의 일기에 기록해두고 있다.

A short story of a young man...“who could not go to Oxford”...His struggles and ultimate failure. Suicide. [Probably the germ of *Jude the Obscure*.] There is something[in this] the world ought to be shown, and I am the one to show it to them....(The square brackets here are in *The Life*.)¹⁸⁾

가히 meliorist로 자처할만한 내용임과 동시에 그 청년은 자살로 사회적 인습체제에 저항했지만 Jude의 순간적인 심정은 십년 공부가 허사로 바뀌는 허탈의 상태가 되어(Yet it seemed a hard slap after ten years of labor,...(p.139)) 명확한 판단도 내리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나가 술집에 들러 몇잔의 술에 취한다. 여기서 Jude의 성격이 취중에 아내를 경매하여 비극의 실타래를 헤집어 내는 Michael Henchard처럼 체념이 빠른 걱정적 단순성¹⁹⁾을 내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당시의 사회적 신분이 미천한 석수장이로서는 오랜 세월의 앙금을 깔고 의형적 권위와 내면의 자부로 지탱해온 일종의 사회적 제도인 대학에 맞부딪쳐 싸워 볼 생각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응어리진 울분의 가슴만 치면서 슬그머니 주저앉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노릇이지만 기껏 한다는 짓이 대학교 담벽에 낙서나 하고——“I have understanding as well as you; I am not inferior to you: yea, who knoweth not such things as these?”(p.141)——싸구려 술집에서 값싼 술 몇잔 얻어 마시며 라틴어 실력이나 과시한다는 것은 대학 공부를 염원했던 목표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정상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치 못하고 체제적인 교육과정을 거치지 못한 환경에서 굳어진 그의 성격적 결함이 표출되면서 그의 자의식에 대한 미숙성도 노출된다. 그가 처음 Christminster에 갔을 때 느꼈던 심경이 확고한 자의식에 입각한 것이라면 단순히 10년 세월이 바친 노력에 연연하여 요행을 바랐을 망정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드러내는 체념과 좌절이 급진적화의 역비례적인 감정을 유발하거나 허탈한 마음을 메꿀 대안을 찾아나서는 일에 성급하진 않았을 것이다.

성급한 체념 뒤에는 회한과 미련의 끈적거림이 따르기 마련이다. Jude도 예외는 아니다. 온갖 풍상을 겪으며 고난의 세파를 헤쳐온 그가 소년시절에 종교모 밑에서 익힌 제빵 기술을 발휘하여 Sue를 시장거리의 내보내 빵장사를 하며 평범한 대로 Kennetbridge에서 안주할 수 있었지만 대학공부에 대한 아쉬움을 떨치지 못해서 가솔을 이끌고 Christminster로 다시 이주해오는데, 아마도 그의 심중엔 백조가 죽음 직전에 혼신의 힘으로 한번 길게 운다는 사실과 대등한 심사가 작용했는지도 모른다. 육망의 높은 담벽을 타고 넘을 명확한 자기 판단력이 모자란다는 사실을 그는 계산치 않는다. 30여세의 그는 임종의 유언같은 말을 하고 있다.

18) Ibid., pp.207-208.

19) 趙進來(1979), ‘Michael Henchard의 性格的 悲劇’, 「언어연구」 제1권 제1호(서울:경희언어교육연구소), p.121.

"I was, perhaps, after all, a paltry victim to the spirit of mental and social restlessness that makes so many unhappy in these days." (p.398)

이상의 내용에서 사회적 인습의 두꺼운 벽에 부딪쳐 뚫고 나가지도 못하고 뛰어넘을 수도 없어서 그 담벽에 튕기쳐 더욱 멀리 밀려나 평행선의 폭만 넓혀버린 Jude의 한 면을 살폈다.

III

Arabella는 Jude에게 첫 아내였고 다시 결합하는 욕구를 겪어 그의 주검을 거둔 여인이다. D.H. Lawrence는 그녀를 Tess에 대한 Alec으로 비교하여²⁰⁾ 인물 됴됨이를 함축미있게 표현하고 있다. Tess와 Arabella는 모두 시골에서 성장한 처녀들이지만 前者가 전원의 깨끗한 면과 아름다움과 자연 그대로의 성품을 나타내는 반면, 後者는 정반대의 입장에 선다. 정신적 가치는 전혀 인정치 않고 육체적 안위와 물질적 풍요만을 따지는 현실 치중의 무교양한 여자다. 그녀의 유혹을 폐치지 못하고 걱정과 불안 속에서 계속 그녀를 만나게 되고 육체관계까지 갖게되어 감정과 이성의 조화가 없는 우유부단한 그의 모습이 표출된다. 사태는 점입가경으로 치닫게 되고 그녀의 옥죄어 드는 보캄에 풍습과 사회적 도덕심에 짓눌려 결혼을 하게 되나 석수장이 직업을 일시적 생활 방편으로 여기면서 학구적 소망의 실현을 궁극의 목표로 삼아 정신적 가치추구에 몰두하는 그와, 그가 받아오는 수입이 생활을 지탱시키지 못한다고 투덜대는 그녀의 현실위주의 가치관은 불협화음의 굉음을 내기 마련이다. 애써 모은 책을 내다 팔아 살림도구를 장만하면서 살아보려 하지만 궁색한 생활에 양광이 깃들리 만무하다. 깊은 회의에 젖어 결단을 내려보려 하나 확고한 자세를 가할 수가 없다. Hardy의 소설들에서 현실 생활 문제를 두고 금전적인 고민을 취급한 작품이 바로 Jude이다. Melchester에서 the Foot of the Cross곡에 감동받아 찾아간 작곡가로부터 돈타령에 환멸을 느끼고 돌아서는(p.236) 모습은 순수를 추구하여 정신적 세계에 안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가난은 그림자처럼 그를 붙어다니며 끝까지 괴롭히고 있어서 친형의 형벌같은 인상을 준다.

그들 부부의 파탄은 돼지잡는 일에서 발단되어 짧은 결혼 생활은 끝난다. Arabella가 그 일에 협력하길 요구하지만 Jude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지렁이도 밟기를 꺼릴만큼 순진한 성품인지라 내집에서 기른 돼지를 어떻게 살해하느냐고 거부하자 그녀는 들으란 듯이 친절에서 들고 배운 말을 거침없이 쏟아 그를 아연케 한다.

She cried. "The meat must be well bled, and to do that he must die slow. We shall lose a shilling a score if the meat is red and bloody! Just touch the vein, that's all. I was brought up to it, and I know. Every good butcher keeps on bleeding long. He ought to be eight or ten minutes dying, at least." (p.74)

대담스럽고 강한 생활력을 지닌 그녀와 가녀리고 착하기만한 그는 어느 한 편에서 용해되어 상대방에 동질성의 화합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다시 원점으로 환원될 수 밖에 없는 잘못 맺어진 한 쌍인데, 문제는 피차 그와 같은 어려운 작업에의 시도조차 하지 않는 데에, 아니, 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 그녀가 퍼부은 옥설처럼 그는 분명히 a tender-hearted fool(p.76)

20) D.H. Lawrence(1964), 'The Study of Thomas Hardy', *Selected Literary Criticism*, ed., Anthony Beal(London: Mercury Books), p.198.

이였을까? 어느 면에선 그녀의 말이 옳을 수 있다. 완전을 지향하는 인간 속성에서 결합과 실수는 다소 보충되거나 시정되기도 하지만 그러한 미완성의 시행착오가 무의식적인 충동적 성격이나 자포자기의 심사와 결부되어, 아니면 인정에 끌리는 어설픈 동정심이 유발되어 일을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올바른 상황으로 추스려내지 못하게 되어 돌이켜 세울 수 없는 중지부를 찍을 때 비극은 심도를 가중시킨다. Jude가 바람불고 스산한, 달도 없는 밤에 Christminster에 첫 발을 들여 놓을 때 그의 상황 판단은 빛나가고 있다. 세상은 순진성과 착한 마음만으론 생존의 가능성에 전면적으로 의존할 수 없음을 그는 알지 못했던 것이다. 오로지 목표를 향한 신념만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에워싸고 조여드는 주변 상황을 쉽게 넘겨짚는 데에 그의 욕망의 강도가 존재함과 동시에 그의 약점이 있는 것이다. 어려운 고전들을 독학으로 독파하면서도 그 책들이 담고 있는 지혜를 생활에 응용하거나 사태 판단의 잣대로 활용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대학지원을 위한 준비작업에만 몰두한다. Arabella가 귀족하여 다시 모습을 나타냈을 때 굳이 그녀를 만나 한밤을 같이 지내고, Little Father Time이 자기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니 거두어 달라고 했을 때에도 아무런 의아심이나 확인조치 없이 받아들이는 그인지라 *The Mayor of Casterbridge*의 Henchard처럼 “the idea of cycle”²¹⁾을 반복하고 있다. 「성격적 결합」이란 질량이 「반복」이란 수단을 통하여 누적되고 커질 때, 자신도 제어할 수 없는 내적, 외적 사건이 밀어부치는 「속도」가 붙으면 그 결과적 힘은 엄청나기 마련이다. Sue와 이혼 후 다시 Arabella가 접근했을 때 자포자기 상태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마음 속으로 그녀를 경멸하면서도 결국엔 다시 결합하는 그의 심성은 회생에의 가능성이 점차 묻어진다. 이렇게 묻어지는 농도에 반비례하여 Jude가 받는 댓가는 목적달성을 향한 욕망의 처절한 파괴작용 뿐이다. 그녀가 지니고 있는 천박스러운 저속한 면은 상대적으로 그가 극복해야 할 그의 약점인 것이다. 결국 그녀가 세상을 자신의 감각으로 움켜쥐려고 한다면 그는 오직 정신만으로 세상을 합리화 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육과 영이 조화를 이룬 균형이 남녀간의 이성 결합에 있어서 최고선이 되겠지만 전술한 것처럼 성격상 결합으로 인해 성실한 인간, 완전한 사람으로서 생활의 고뇌와 책임감을 부인하고 회피하면서 팽팽한 평행선만 지우지 못할 만큼 뚜렷하게 두 줄을 그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 평행선의 한 쪽을 의미하는 그녀의 함축적인 뜻은 대조를 이루는 또 한 인물에 연결되면서 그의 면모와 성격을 밝히게 된다.

Arabella's flaws are traditional; she is harsh, but comprehensible. A contrast indeed to Sue Bridehead.²²⁾

N

Susanna Florence Mary Bridehead. 이 여인은 Jude가 Arabella를 통해 정신과 육체의 갈등과 불협화음 속에서나마 성숙의 과정을 거쳐 진정으로 사랑을 바친 대상 인물이다. E. Mardwick은 그녀의 이름을 분석하여 함축적인 의미를 규명한다.

Bridehead: it is curious that Hardy should have chosen this name for Sue. It is a curiosity, and something of an embarrassment, because the plot of Sue's life circles around two great reservations ...refusal of sex and grave misgivings about marriage. Is 'maidenhead' to be thought of? Is the

21) Kramer(1975), p.22.

22) Elizabeth Hardwick(1976), 'Sue and Arabella', ed., M. Drabble, p.71.

idea of attaching 'bride' to the name of a young woman genuinely questioning about marriage meant as a telling incongruity? Yet there is a sound to the name that does not impugn the high tone of Sue's discourse or her ambivalences that are like a deep tattoo on the skin of her being.²³⁾

또한 그녀의 태어남에 대한 논거가 있어 서문을 먼저 읽어 거기서 작자의 작품 구상 연유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The scheme was jotted down in 1890, ...some of the circumstances being suggested by the death of a woman in the former year. (p.v)

이 문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Jude*에 작자의 자서전적 요소가 그의 다른 소설들 보다도 유난히 많고 강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특히 Tryphena를 Sue로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L. Deacon은 "the death of a woman in the former year[in the year 1890]"²⁴⁾가 Tryphena의 죽은 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녀를 추모하고 기리는 뜻을 의중에 품었던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작자가 인물 설정에 대하여 애착을 느껴 "Sue is a type of woman which has always had an attraction for me,..."²⁵⁾라고 밝히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이유에서 절차탁마의 작업이 Sue에게 쏟아진 덕분인지 그녀의 인물 설정에 대한 찬사가 높다. D.H. Lawrence는 Tess의 Angel Clare와 *The Return of the Native*의 Eustacia Vye에 비교하고²⁶⁾, E. Hardwick은 "She is an original, mingled being."²⁷⁾이라고 말하며, Heilman은 "...Thomas Hardy comes close to genius in the portrayal of Sue Bridehead."²⁸⁾라는 평과 함께 "The portrayal of her is the major achievement of the novel."²⁹⁾이란 칭찬을 보내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은 거슬러 올라가서 *Julius Caesar*에서 Caesar와 Brutus와의 관계나, 뒤로 물러서서 *Light in August*에서 Joe Christmas와 Lena Grove의 관계를 밝혀 사실상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규명하는 문제와 유사한 경우가 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Arabella의 결합이 Jude의 약점으로 해석되는 것 만큼이나 Sue에 대한 칭찬은 그를 패배와 몰락의 구경으로 몰아가는 반비례 역할을 하고 있어서 Sue도 Jude에겐 또 하나의 평행선이 되는 것이다. Jude와 Sue의 관계는 육체적 결합의 문제를 대두시켜 정신과 정신의 갈등인데 시간상으로 과거와 현대에 근거를 두고 궤도가 다른 공간을 확보하려는 자아 주장이 자기 다른 궤적 운동을 그리려는 팽팽한 긴장의 연속이다. 이들의 첫 대면에서 그가 "a sweet, saintly, Christian business, hers!"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가 품고 있는 Christminster의 전통적 인습에 매달리고 있음을 뜻하지만 그녀는 생계 때문에 ecclesiastical warehouse에서 근무할 따름이지 근본적 정신세계는 종교에 대한 회의심이 강하고 J.S. Mill을 열렬히 신봉하는 사람이다(p.271). 그가 학문과 전통을 숭앙하여 Christminster에 지속적인 존경심을 품고 있음에 반하여 그녀가 정반대의 견해를 지니고 있음은 다음 대화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23) Ibid., p.71.

24) Deacon(1976), p.28.

25) Hardy, F.E. (1962), p.272.

26) Lawrence(1964), pp.198, 200.

27) Hardwick(1976), p.67.

28) Robert B. Heilman(1965), 'Hardy's Sue Bridehead', *Thomas Hardy: The Tragic Novels*, ed., R.P. Draper(London: Macmillan, 1978), p.209.

29) Ibid., p.212.

"Shall we go and sit in the Cathedral?" he asked, when their meal was finished.

"Cathedral? Yes. Though I think I'd rather sit in the railway station," she answered, a remnant of vexation still in her voice. "That's the center of the town life now. The Cathedral has had its day!"

"How modern you are!"

"So would you be if you had lived so much in the Middle Ages as I have done these last few years. The Cathedral was a very good place four or five centuries ago; but it is played out now.... (p.159)

시간상으로 몇세기의 간격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녀에게 집착하고 들어가는 것은 Arabella에게서 느낀 환멸과 대학의 꿈이 무산되어 공허해진 마음을 채움질하고 그 보상을 찾으려는 생각으로 자기처럼 비록 독학은 했으나 지성적인 면을 그녀에게서 강하게 느꼈기 때문이다. 그녀는 意識世界와 정신의 영역내에서 살고 싶어 하면서 육체적인 삶은 실제로 원치않고 다만 육체적으로 산다는 의미만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는 그녀에게서 "almost an ideality"(p.119), "almost a divinity"(p.173)를 강하게 의식한다. 더우기 그녀에 대한 파악이 깊어짐에 따라 그녀에게 직접 표현하거나 혼자 생각하는 표현이—ethereal(p.225), uncarinate(p.225), aerial(p.262), spirit...disembodied creature...hardly flesh(p.298), phantasmal, bodiless creature(p.315), least sensual woman(p.421), a sort of fay, or spirit(p.432)—미묘하게 바뀐다.

도대체 Jude가 방향 설정을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Sue를 계속해서 쫓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Heilman은 설명한다.

Sue's original role, of course, is that of counter-point to Arabella: spirit against flesh, or Houyhnhnm against Yahoo.³⁰⁾

근본적으로 Sue는 중대한 사실을 두 가지나 은폐하고 있는데, 하나는 性에 대한 거부고 다른 하나는 결혼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이다. 이들은 사춘간이라는 사실외에도 피차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Jude가 감지하고 의식해야 마땅할 일이다. 그것은 종교모 Drusilla로부터 전해들은 집안 내력과 종교의 말에 내포된 사실과, 그와 그녀가 서로 의존하고픈 심경 등이다. 그러나 그녀의 젖은 옷을 말리느라고 자기의 옷을 입혀두고 그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분신을 확인하고 narcissism의 요소³¹⁾를 강렬하게 의식했다고 할지라도 현실과 사변의 세계 사이에 한계선이 명확했어야 할 일이었다. 따라서 Drusilla의 예언적인 충고를 그가 좀 더 깊이 생각하기를 바라기 보다는 오히려 plot의 irony를 심화시키는 Jude의 과오가 빚어내는 데서 큰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Of course the book [*Jude the Obscure*] is all contrasts...was meant to be in its original conception.... Sue and her heathen gods set against Jude's reading the Greek testament; Christminster academical, Christminster in the slums; Jude the saint, Jude the sinner; Sue the pagan, Sue the saint; marriage, no marriage; &c., &c.³²⁾

Jude가 "...she had fled to him in her trouble as he had fled to her in his. What a

30) Ibid., p.209.

31) 김철자(1976), 'Jude the Obscure', 「영어영문학」 59호(서울:한국영어영문학회), p.60.

32) Hardy, F.E. (1962), p.273.

counter-parts they were!"(p.171)라고 느끼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상대방에게 가지는 시발점의 인식이 착오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녀가 Christminster를 떠나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걸을 때 그는 연인의 수줍음을, 그녀는 친구의 자유스러운 부담없는 관계를 노출시킨다. 또한 그녀의 과거 내력에서 Christminster undergraduate와의 런던 동거생활이 15개월이나 지속되면서도 이성이 아닌 친구로서의 관계가 유지되었고 끝내 그 청년은 자기 때문에 요절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Jude는 그녀의 진면목을 파악했어야 하는데 피상적으로 "...that epicene tenderness of hers was too harrowing"(p.183)이란 느낌 정도로 매듭지어 버린다. 결과적으로 그 청년이 Jude의 앞날에 대한 암시적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느낌을 주게 된다. 현실에 대한 판단력보다는 스스로 품고 있는 자신감을 확신하면서 한 걸음씩 접근해 들어가는 데서 그의 의욕이 흐르는 아집이 작용을 강화시킨다.

또 한 가지 그의 오판은 그녀를 45세나 된 Phillotson에게 소개시킨 결과가 그들을 결혼으로 낙착시키고 그들은 불과 2개월의 결혼 생활 끝에 헤어지는데 그 이유를 Jude는 자기 편에 의거 해석함으로써 Sue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우를 범한다. 그녀가 자기 보호의 강한 이기적 본능과 과도한 자기주장 그리고 방종스러운 성품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명망이 보장된 Christminster학생을 거부하고 나이 많고 사회적으로 무기력한 Phillotson을 선택하지만 그녀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자기위주의 선별이었기 때문에 타당한 것이다. Phillotson이 Sue와 결합한 이유는 사랑은 배제하고라도 오직 생활의 위안과 만족에서 오는 희열을 얻을 수 있는 한개의 도구로서 그녀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성에 대한 편협한 견해와, 경이로운 느낌을 오래도록 맛보면서 만족스러운 안정을 추구하려는 정신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서 그녀를 원했기 때문이다. 완전한 정확성은 결여되지만 이런 사실을 파악한 그녀이기 때문에 그와의 결혼은 잘못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Sue를 Jude는 꿰뚫어 보지 못한채 소유에의 열정만으로 접근했던 것이다.

Arabella는 Sue를 "not a particular warm-hearted creature"(p.357)이라고 못박고 "She don't know what love is."하기 때문에 "a slim, fidgety little thing"(p.358)으로 단정한다. 그러나 Jude는 Sue가 Phillotson과 재결합을 하던 날 그녀가 자기에게로 달려올 것만 같은 환상에 잠기면서 거의 병적인 애정을 다지면서 그녀의 언행을 모조리 잘못 시작되고 부당하게 결합된 결혼에 연결시켜 생각하고 자기만이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자부한다. 특히 종교모 장례를 치른 날 밤, 그가 밧에 걸린 토끼를 처리하는 일은 그 자신의 생애에 전환점을 그어 그녀에게 접근해 갈 수 있는 자세를 다듬는 일과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된다. 신학과 문학등 그가 소유하고 있던 책을 모조리 땅에 묻고 불태워 버린 다음 인간의 肉과 靈의 내면 대결에서 전자가 후자에 대해서 항상 우세할 수 만은 없다고(p.232) 확인하던 종전의 자세가 크게 흔들리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In his passion for Sue he could now stand as an ordinary sinner, and not as a whited sepulchre.
(p.264)

Phillotson이 관용과 친절을 합리화시키면서 Sue를 그녀의 뜻대로 살도록 방임해주고 Arabella가 귀국하여 다른 사람과 다시 결합하는 등 외부 상황이 Jude와 Sue의 재결합 가능성을 높여주나 그들의 내면 갈등은 아직도 합일점에 도달하기엔 너무 먼 거리에 있다. 그의

“Now we’ll strut arm-in-arm like any other engaged couple. We’ve a legal right to.”(p. 313)라는 희망에 부풀 마음에 “I think I would much rather go on living always as lovers, as we are living now, and only meeting by day.”(p. 314)라고 차갑게 응수한다. 이러한 그녀의 태도엔 조금도 변화가 없고 일관된 자세로 그를 대하는데, 그는 더욱 더 평행선의 간격을 좁히고자 무진한 노력을 경주하나 자체 해결이 없고 오히려 외부의 자극에 의한 그녀의 심경 변화가 일어난다. Arabella가 Little Father Time을 양육하라고 찾아왔을 때 Sue는 그녀에게 여인의 강한 질투심을 느끼고 Jude에게 매달린다. ironic solution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변덕스럽고 자기도취적이며 아집스러운 그녀가 또한번 스스로 회절하는 장면은 Phillotson과 재결합한 후 비가 쏟아지는 날 병든 몸을 이끌고 찾아온 Jude가 애절하게 호소하던 날 밤에 그토록 거절하던 잠자리를 Phillotson에게 자청하면서도 무서움에 떠는 모습을 드러내던 때(p.488)와 같은 장면이다. 특히 그녀의 표현된 말이 “It is my duty”(p.489)이기 때문에 Jude에게 대하던 근본 태도와 별반 변화가 없는 셈이다. 그녀의 변덕스러움은 Jude와의 결혼식 문제에서도 드러나는데 그때마다 그녀가 내세우는 이유는 구구하면서도 타당성있게 그에게 납득되는 듯하지만 다시 자기에게서 멀어질 그녀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그는 강력한 의사 표시도, 설득도, 심지어는 교언영색마저도 시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anything that pleases you will please me”(p.347)라든지 “We are horribly sensitive; that’s really what’s the matter with us, Sue!”(p.349)라는 표현이 고작이고 “If you are happy as we are, what does it matter to anybody?”라고 자위하고 달래거나 하면서 완전히 그녀에게 이끌려 따라감으로써 후에 그녀가 Phillotson과 재결합하는 일을 성사시키는 소지가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내면 의식은 자신의 그당시 사태와 입장에서 그녀마저 잃는 경우엔 도저히 심신 양면의 버팀대가 있을 수 없다는 점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유부단하고 나약한 약점이 표출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자의식이 자꾸만 자기 몰락의 과정을 재촉하는 그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입장에선 결혼식을 기피하는 이유가 충분히 성립되고 있다. 결혼식이 이루어진 다음에 전적으로 자신을 내맡기거나 심신의 문을 활짝 열어놓지 못할 것은 자명한데 외형적인 형식의 문제가 그리 대단할게 없다는 그녀의 근본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굳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자식을 둘이나 낳았고 또한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것은 그들이 즐곳 방을 따로 사용하면서 별거아닌 별거의 생활로 묘사되고 있는 이상 진정한 의미의 부부 결합으로 해석될 수 없는 문제다. 따라서 Jude는 자신이 바라고 있는 것처럼 Sue를 아내로서 소유치 못한 것이고 그녀 역시 절름발이 역할의 아내인 것이다. 결혼식 자체가 그들 두 사람을 묶어주는 의미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들이 정식 부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질 때마다 주변 사람들과 직장에서 받는 멸시와 박해를 벗어남과 동시에 outsider신세를 면하고 사회인습의 틀에 들어서서 사회구성의 한개 단위로써의 가치를 가지게 됨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녀의 결혼에 대한 불안감을 D.H. Lawrence가 정곡을 찌러 설명하면서 Jude의 과오를 힐책하고 있다.

With Sue, however, the marriage was no marriage, but a submission, a service, a slavery. Her female spirit did not wed with male spirit...³³⁾

It was wrong for Jude to take her physically, it was a violation of her. She was not the virgin

33) Lawrence(1664), p.207.

type, but the witch type, which was no sex. Why should she be forced into intercourse that was not natural to her?³⁴⁾

그러나 그의 안목은 Jude의 지적 분별력에 견주어 너무나 높은 차원의 것이어서 Jude에게 호소력이 강하지 못한 충고인 셈이다.

작자 Hardy는 Sue를 “a type of woman which has always had an attraction for me”³⁵⁾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녀는 스스로가 Jude의 맞수로서 그가 헤어지지 못할 상황으로 접근해가게 하는 作因역할을 하면서 Little Father Time이 Jude에게 결정타를 치게하는 치명적 이야기를 자기나름의 무비판적인 견지에서 피력함으로써 그를 파국으로 밀어부치는 결과를 초래케 한다. 먼저 Little Father Time을 받아들일 때 Jude는 그 아이가 친자식인지를 확인도 하지 않고 애들은 그 시대의 성인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로 도덕군자연 하고 Sue는 양자인 셈치고 받아들여 양육한다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두 사람은 공동 실수를 범한다. 다음으로, 그녀가 그 아이의 질문에 말려들어 몇마디 답변을 하는데서 그녀의 실수가 유발되고, 또 Jude는 그 아이의 무서울 정도로 조숙한 사고 방식에 조금도 패념치 않고 방치한데서 역시 과오를 저지르게 된다.

“Can I do anything?”

“No! All is trouble, adversity, and suffering!”

“Father went away to give us children, room, didn't he?”

“Partly.”

“It would be better to be out o' the world than in it, wouldn't it?”

“It would almost, dear.”

“This because of us children, too, isn't it, that you can't get a good lodging?”

“Well, people do object to children sometimes.”

“Then if children make so much trouble, why do people have 'em?”

“Oh, because it is a law of nature.”

“But we don't ask to be born?”

“No, indeed.”

“...I wish I hadn't born!”(pp.406—407)

Drusilla가 알려준 Fawley家の 결혼에 얽힌 저주, 그리고 Jude와 Sue의 근친상간 관계를 거쳐 Father Time의 이복동생들 살해와 자살 행위는 三代에 걸친 참화로써 Tess가 지니고 있는 유전적인 피의 채널을 통해서 오는 조상들의 기질과 충동³⁶⁾으로 연결지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Father Time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 부부의 태도는 완전히 뒤바뀌어 또 다시 반대 방향으로 치닫는 평행선이 되어 그의 인생에 대한 시야는 폭이 넓어져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자세로 바뀌나, 그녀는 死産의 산고까지 치루면서 오히려 인습의 울타리 안에 안주하려든다. 자식들의 죽음을 통해 인생살이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그애들의 죽음에서 마음의 정확을 얻었으니(p.445) 결국 그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뜻을 달면서 Phillotson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는 간청을 한다. 이처럼 그녀가 찾는 안주의 울타리가

34) Ibid., p.206.

35) Hardy, F.E. (1962), p.273.

36) 李泰東(1976), “Thomas Hardy 作中人物의 유전문제——*Tess of the D'Urbervilles*를 중심으로」 「영어영문학」 60호(서울: 한국영어영문학회), p.10.

사회적 인습의 차원에서선 튼튼할지 모르나 Jude의 주장을 앞에 놓고 Arabella가 말하듯이 그녀의 내면상 안주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긍정적 용납은 어렵기만 하다. 그러나 그녀를 다시 둘러보낼 수 밖에 없다는 필연성 보다는, 그리고 법적으로 불완전한 부부관계라는 현실적 법규 적용보다는 너무 애뜻하게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자신의 이기심을 죽이고 그녀를 살린다는 관대한 인간미 넘치는 숭고한 정신이 한껏 발휘되어 그녀를 둘러보내지만 Jude는 승화된 정신의 소유자로 영생의 가치를 가짐과 동시에 현실적으론 이미 생명력 없는 한낱 유기체로서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Jude의 미약하고 허술한 자의식은 욕망의 유혹에 다시 굴복하여 Sue를 찾아가 다시 돌아오도록 호소함으로써 인간적인, 너무나 속물다운 속성으로 전락하여 고귀한 정신의 승리에서 완전한 패배자가 되어 버린다.

그가 죽음을 경각에 두고서 Sue를 애타게 부르는 그의 음성은 숭고하게 승화된 경지가 일시에 무너져내리는 평음이다.

...he coughed to exhaustion again...saying, still more feebly: "Water...some water...Sue...Arabella!"
"Throat...water...Sue...darling...drop of water...please...oh, please!"

.....

"Ah...yes! The Remembrance games," he murmured. "And I here. And Sue defiled!"(p.496)

Jude의 임종은 열린 창문을 통해서 Christminster의 축제의 함성이 울려오는 조그마한 방에서 외부와 단절되고 아무도 지켜주는 사람도 없는 가운데 쓸쓸하게 이루어졌다. 마치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의 자궁에서 어둡고 외롭게 생명을 시작했듯이 Father Time이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한 것처럼 창밖의 함성을 배경 음악 삼아 출생을 저주하면서 30여년의 짧은 생애를 끝막음한 그의 죽음이 한껏 비통한 느낌을 강하게 주는 것은 대학 공부에 대한 평생의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Christminster로 다시 이주함으로써 Kennetbridge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거부하고 파탄을 자초했기 때문일 것이다. 가족을 이끌고 Christminster에 다시 오던 날이 학위수여식이 있는 날이었고 그가 죽는 날은 대학의 축제가 벌어진 날이었다. 여기에 작자의 작위적인 사전 배열이 있음을 배제하건 어려우나 그것보다는 비극적 처참함에 강도를 높이고 따라서 *ironical solution*을 얻으려는 각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V

지금까지 주인공 Jude의 발자국을 더듬어 그가 겪은 짧은 생애를 통해 그의 욕망과 그것에 대한 그의 자의식이 어떻게 작용되어 그의 성격이 표출되는가에 조명을 드리워서 그가 비극적 인물임을 밝혔다. 현대 사회가 세습적 사회신분을 용납치 않기 때문에 고전적 비극에서처럼 고귀한 신분의 주인공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에 유의한다면 현대 감각에서 해석하는 비극의 주인공은 Jude Fawley처럼 비록 출생은 비천하더라도 고귀한 인생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품격이 깃든 자세로 고상하게 성취시켜나가는 인물이어야함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Jude는 학문에 대한 동경과 열망을 지니고 이를 달성기 위해서 생활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초지일관했으나 전통적 인습의 담을 뚫어내지 못한채 좌절했고 이 좌절을 극복하고 다시 뛰어넘으려 했으나 그의 의식세계의 한계로는 너무 벅찬 대상이었으며 내면의 성격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극복될 수 없었다. 그 좌절된 돌파구를 Sue에게서 찾아내려고 끝없이 부딪쳐 나갔으나 그녀의 완강한 고집과 이기적인 본능, 그리고 자유분방한 성격에 좌초되어 항상 궁리해낸 최선책은 자승자박의 도구가 되어 성격 파탄이 오고 그 결과로 그는 시,

들어 사라진 것이다. 혼신의 힘으로 밀어졌던 만큼 같은 속도로 밀려오는 파멸의 반작용도 빨랐던 것이다.

많은 평자들이 Jude보다는 Sue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는 점은 Jude를 경시하거나 가치 인정의 대상으로서 약세의 인물 설정이란 뜻이 아니라 마치 Jane Eyre가 뚜렷한 여주인공의 image를 강하게 부각시킨 것처럼 당시의 세태로 미루어 Sue라는 「신여성」을 등장시켜 영문학사상 소설의 여주인공으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드러낸 탓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주인공 Jude가 존재하게 된다. 이에 대한 설명은 본 논문의 I항에서 인용한 Hardy의 비극관과 다음과 같은 그의 언급을 살피는 데서 충분해지리라고 본다.

...Tragedy. It may be put thus in brief: a tragedy exhibits a state of things in the life on an individual which unavoiingly causes some natural again or desire of his to end in a catastrophe when carried out.³⁷⁾

따라서 R.A. Scott-James가 지적한 내용, 즉 Jude가 Aristotelean tragic rule을 다소 어기고 있어서 비극의 규범에 넣기가 망설여진다는 견해³⁸⁾는 지나친 고답적 견지에서 보는 비극 규범으로 현대 감각이 결여된 해석이라 하겠다. 반면에 Virginia Woolf는 Jude처럼 평범한 인물을 비극적 인물로까지 끌어올린 작자의 역량이야말로 찬사를 받아 마땅하다³⁹⁾고 했다. 또한 D.H. Lawrence는 Jude야말로 값지게 설정된 인물이라면서 "...Jude is a complete tragic hero..."⁴⁰⁾라고 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Jude가 단순히 비관론적 정명론에 입각한 꼭두각시가 아니라 스스로의 인격과 성격을 갖추고 생애를 엮어나간 자연스러운 「인간」이란 점에 이유가 있다고 보아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Jude는 짝을 이루어 상대한 대상들과 하나 같이 평행선의 작업으로 일관한 짧은 생애를 엮었다. 상대방이 접근해오면 스스로 물러서는 自意識이 발동되었고 반대로 自意識의 한계를 넘어 욕망성취의 의욕만으로 자신이 접근하면 상대편에서 접근한 만큼 물러섰다. Arabella와 Sue를 하나로 묶으면 Jude에게 비극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세계의 선으로 이뤄진 평행선을 딛고 서 있기 때문에 그는 한결 돋보이는 인물인 것이다.

Jude와 Arabella 및 Sue와의 類型的 관계에 대한 발전적 형태는 D.H. Lawrence의 여러 소설에서 그 맥락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경희대학교

문리과대학 영문학과

37) Hardy, F.E. (1962), p.176.

38) Scott-James(1957), p.26.

39) Virginia Woolf(1928), 'The Novels of Thomas Hardy', ed., R.P. Draper, p.73.

40) Lawrence(1964), p.181.